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수령 전설
Kims' Legend: Of the public, by the public, for the public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수령 전설
Kims' Legend: Of the public, by the public, for the public

석재현 지음

1. 들어가는 말

- 1) 북한의 수령전설이란? _연구 주제 소개 ... 4
- 2) 이 책은 왜 필요한가? _선행 연구 ...6
- 3) 이 책은 어떻게 나왔나? _연구 방법 소개 ...7

2. 전설에서 강조되는 수령의 특성

- 1) 수령님은 초능력자! _초월적 면모 ...8
 - (1)선견지명 ...9
 - (2)축지법과 센 힘 ...12
 - (3)자연과의 합응 ...16
 - (4)사물의 창조 ...18
- 2) 자애롭고 잘생기신 수령님! _인간적 면모
 - (1)자애로운 인품 ...21
 - (2)수려한 외모 ...25

3. 보편 영웅 전설과 수령 전설의 비교

- 1) 유사성
 - (1)고귀한 혈통 ...26
 - (2)비범한 출생 ...27
- 2) 독자성
 - (1)위기 상황의 부재 ...30

4. 수령전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_ 창작시 강조되는 세 가지 전략

- 1) 진실성 ...34
- 2) 인민성 ...36
- 3) 인민 창작성 ...43

5. 나가는 말 ...44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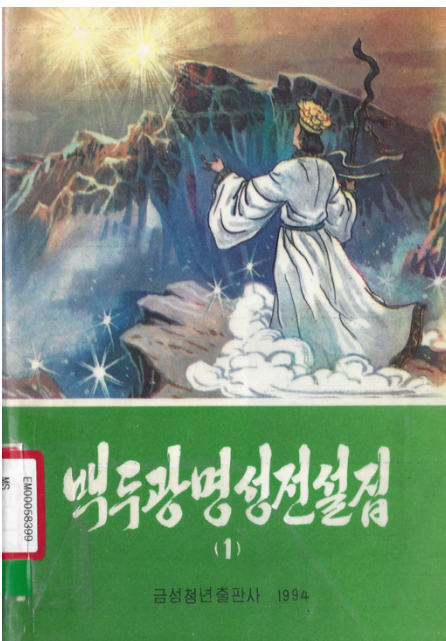
1) 북한의 수령 전설이란? _연구 주제 소개

“수령님께서는 전설집을 많이 출판할데 대하여 여러번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설, 1991: 머리말)

“전설들은 거의 모두가 위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후세에, 오랜 세월을 거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시는 지금 현실세계에서 전하시는 수많은 전설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백두산광명성전설집 편집부 머리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상상해낸 가짜 이야기’ 북한의 수령 전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한 눈에 보기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제목과 소재를 보면 이러한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수령님’을 신격화하고 초인적 존재로 묘사하는 맥락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령 전설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한 상상력의 산물일까?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기엔, 북한의 수령 전설에도 현실의 반영과 구조적 체계성, 소재의 일관성 등이 존재한다.

▲백두광명성전설집 1권의 표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수령 전설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가공의 과정을 거쳐 사실이라고 믿게끔 유통되는 이야기임을 밝힌다. 즉, 어느정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에 ‘가공’을 가하고, 의도적으로 편집, 수정하기 때문에 다소 허구적인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설에 사용되는 가공 기법은 주로 세 가지인데, 1)새로운 사실의 추가 2)기존 사실의 삭제 3)재해석과 과장을 통한 과장의 기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기법은 모두 수령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로 사용되는 기법이다(김화경, 1998: 12). 실제로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 정치, 사상적으로 인민을 교화하여 당이 하는 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문예 정책을 통해 모든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고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수령 전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김일성 우상 전설집 <백두산 전설집>은 백두산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벌인 항일무장투쟁에 얽힌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김정숙의 일대기 전설집인 <백두산여장군전설집>, 김정일의 일대기를 전설화 한 <백두광명성전설집>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설화는 김일성과 김정일 설화인 <백두산 전설집>과 <백두광명성전설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두 전설집을 중심으로 수령 전설들이 갖추고 있는 주제면에서의 체계성을 밝히기 위해 수령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한 후, 보편 영웅 전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수령 전설의 장르적 독자성에 집중한다. 또한 이러한 독자성과 관련된 북한에서의 창작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만연하던 수령 전설은 체계성과 독자성이 결여된 장르라는 생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임을 밝힌다.

제목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수령전설”은 이 책을 요약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수령을 높이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되던 수령 전설이 사실은 인민들과의 관계성도 짙다는 것이다. “인민의”는 전설들을 읽는 것은 결국 인민이라는 점을, “인민을 위한”은 수령 전설들에서 짙게 나타나는 ‘인민성’, 즉 인민에 복무해야 한다는 신조를 의미한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은 “인민에 의한”이라는 표현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미리 말하자면, 북한에서 수령 전설은 ‘김우경’을 비롯한 당 소속 문예 작가들이 창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전설들이 모두 실화이며 특정 창작자에 의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지은이’가 아니라 ‘수집 발굴자’와 같은 독특한 표현을 쓰거나, 전설들이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인민들에게 ‘구전되어 온’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서는 수령 전설이 ‘인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참작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2) 이 책은 왜 필요한가? _선행 연구

기존 연구로는, 설화가 당의 문예 정책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그곳에 실린 자료는 어떤 의도된 목적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한 김화경(1998), 김문태(1999), 김영희(2002), 한정미(2004)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김화경의 연구는 <구전문학자료집>중 설화편 단 한권을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논의의 한계가 있다. 김문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어느정도 다루고자 하는 ‘김일성 수령 전설’을 주제로 삼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일반 설화와 달리 수령 설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 그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즉, 내용적 측면보다 그 형태적 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김영희 역시 전설의 내용보다는 구전 설화가 북한에서 전승되는 양상 자체를 분석했기 때문에 북한의 수령 전설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마지막 한정미의 연구는 설화를 신화, 전설, 민화로 분류하는 북한의 특성과, 설화에 대한 당국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데, 설화의 하위 분야인 전설에 대한 부분이 극히 적어 수령 전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로 찾은 자료들은 주로 ‘설화’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세부 갈래인 전설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거나, 다루더라도 그 전승 양상이나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내용적 측면과 주요 소재와 주인공 측의 분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북한의 수령 설화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저 허무 맹랑한 상상력의 산물로 간주되는 북한의 수령 설화의 내용에 따른 분류(강조되는 수령의 특성/중심 소재를 중심으로)와, 그 장르적 독자성,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에서의 활용 양상까지 다

뤄볼 것이다.

3) 이 책은 어떻게 나왔나? _연구 방법 소개

먼저, 전설들의 분류 부분에서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 강조되는 수령의 특성, 주요 소재에 따라 전설을 분류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자료원에서 대출한 북한의 수령 전설들을 문헌 조사한 후,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후, 양적으로 특히 집적된 주제나 소재가 있다면 그 집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북한의 사회적 특성과 연관해 나름의 해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설화의 보편 구조와의 비교 부분에서는 앞에서의 문헌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파악한 북한 수령 전설의 장르적 특성을,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일반 설화의 구조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에서의 전설 활용의 부분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북한 자료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와 각종 선전물에서 전설이 활용되는 부분을 발췌한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분류 작업을 통해 파악한 수령 설화의 주제의 독자성, 그리고 보편 설화 구조와 구분되는 장르적 독자성이 북한에서의 선전, 선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2. 전설에서 강조되는 수령의 특성

전설집에 속한 다양한 전설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수령님의 특성 중 초인적 능력의 존재 여부다. 물론 예상대로 초월적인 면모를 다룬 전설들은 많았다. 따라서 네 가지 기준(선견지명, 축지법, 자연물과의 합응, 사물의 창조)으로 다시 세부 분류를 한 후 나름의 분석을 추가했다.

또한, 수령 전설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는 달리, 수령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해 추앙하는 전설도 다수 있었는데 이는 주로 수령님의 자애로우신 인품을 찬양하거나, 외모의 측면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한다.

1) 수령님은 초능력자! 초월적인 면모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이야기가 환상적으로 적히는 것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환상이 당대에는 실현될 수 없는 지향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적인 수법”으로 설정된 ‘염원적’인 것이라면 인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민들의 염원은 대체로 ‘착취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나 ‘왜놈들, 미국놈들을 혼내주는’것 등이 포함된다. 즉, 전설 속에서 초월적 양상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염원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수령 전설에서 수령님을 초월적 인간으로 묘사하는 구체적 양상을 설명할 것이다.

(1) 선견지명

앞 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나라 전체를 손금 보듯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 수령님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 다음 예시들을 통해 알아보자.

〈백두산 기인설〉



1. 백두산 기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함
2. 백두산 기인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박학다식하며 예언도 하고 온몸에서 빛이나 주위가 환함
3. 이야기꾼 노인이 기인 이야기하며 특정 지명 기억이 안나 절절매자 태연하게 알려주고 하늘로 날아가는 5-6살 정도의 소년
4. 3년 뒤에 해방이 온다는 예언까지 하고 돌아갔고 정말 3년 뒤에 해방을 맞음
5. 백두산 기인 그는 어린 시절의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 (김정일)

“3 일동안 우뢰와 폭우가 내린 것은 곧, 3 년 뒤에 해방이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 전설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3 년 뒤에 해방이 된다’는 예언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예언의 보편적인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수령이 하는 예언은 사소한 것들이 아닌,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기인설〉과 〈아기 장수〉에서는 ‘국가의 광복’이 주요 소재로, 얼마나 뒤에 조국 광복이 실현될지 내다보며, 〈백두산의 징별〉 등에서는 악독한 일본 경찰들이 곧 척결될 것임을 예언한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범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의를 위해서만 예지능력을 사용하는 수령의 모습은 또 한번 존경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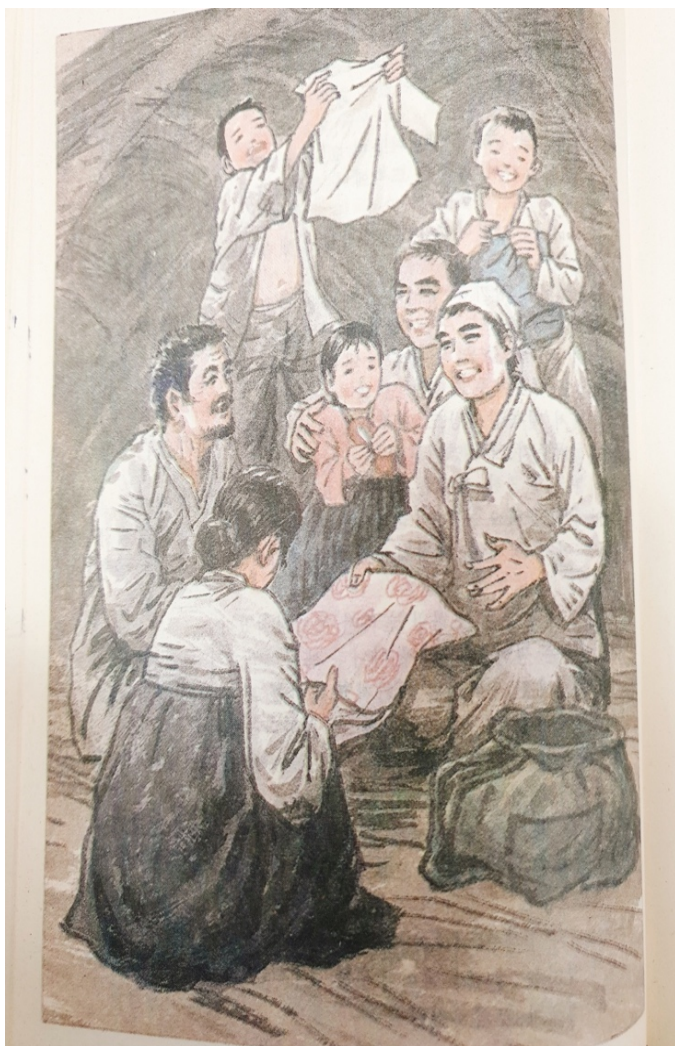
또한, 예언이 언제나 들어맞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흥미롭다. 수령이 예언을 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예언에서 언급한 시간적 배경을 비추며 정말 그 예언대로 조국이 광복했음을 언급하며 전설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하늘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를 보자.

<하늘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1. 아호비령산줄기의 설화산에는 농군 박두석이 가족과 살고 있었음, 왜놈의 횡포로 어려운 형편
2. 어느날 찾아온 젊은이 두명, 가족 모두 잊은 박두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술, 옷, 치마, 고무신 선물
3. 지금 사는 오두막을 떠나 새 집을 사라며 돈을 주고 곡식도 대신 추수해줌
4. 남겨진 편지: “저희는 김일성장군님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김일성 장군님이시고, 우리들의 집은 백두산입니다.”
5. 사실 김일성이 온 나라 구석구석을 손금보듯 하고 박두석을 도와주라고 보냄

“온 나라 구석구석을 손금 보듯 하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박형네가 고생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라고 하시었습니다.”

<백두산 기인설>과 같이, 시간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도 있지만, 장소의 측면에서도, 수령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신다. <하늘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에서 수령은, 백두산줄기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인민 한명 한명의 집안 사정까지 모두 살피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미래까지, 공간적으로는 온 삼천리 조선땅을 트랙을 산책하듯 보시는 수령님은 보통 인민들과는 차별화되는 초인적 능력을 갖추신 것이다. 이처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비범한 시각을 가지신 수령님은 인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으며 항상 도우신다는 믿음은 인민들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청년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박두석과 가족들

(2) 축지법과 센 힘

‘축지법’은 수령 전설에서 강조되는 초인적 면모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다. 축지법의 정확한 정의는, ‘땅을 접는 법’으로, 같은 거리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가공의 기술을 말한다. 축지법이 주요 소재가 되는 전설들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의 징별〉

1. 일제에 남편 잃은 아낙네에 조의를 표하러 온 어깨에 눈이 없힌 젊은이: “저녁을 먹고 백두산에서 조의를 표하러 왔다”고 함
2.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축지법을 쓰시어 나를 보내 위로를 전하십니다.
3. 김일성장군님은 삼천리 조선땅을 트랙을 산책하듯 보십니다
4. 돈과 귀증품이 든 배낭을 선물하며 떠남, 떠나는 길에 악질적인 일본 경찰과 왜놈들을 척결

“놀라지들 마십시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축지법을 쓰시어 아낙을 위로하라고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젊은이는 떠나며, 일본 경찰들에게 인민을 괴롭히지 말라는 위협적 벽보를 남기고 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축지법이 주요 소재인 수령 전설들에서는, 수령의 직접적인 도움보다, ‘간접적’으로 인민들을 돕는 전설이 양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령은 직접 축지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이나 군대를 시공간의 균열 사이로 보낸다. 이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이는 수령의 높은 위치성을 강조, 유지하기 위한 것 같았다. 즉, 수령은 모든 일을 감독하는 일종의 지휘관이고, 실제적인 조치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수령의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시각’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범한 시각은 일반 인민들은 절대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수령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니 수령님은 가장 높은 위치(주로 백두산 정상머리)에서 감독을 하는 존재로 그리는 것이다. 그러다 특별한 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시면 자신만의 독자적 능력인 축지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 축지법을 써서 왜놈들을 척결하시는 수령님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 중 종종 나타나는 모습은 축지법을 이용해 룡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3) 자연과의 합응 _ 손가락을 까딱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은 예로부터 신성한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자연을 통제’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날씨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인데, 이는 대부분 비범한 인물의 감정 상태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화가 나면 번개와 벼락이, 슬프면 비가, 기쁘면 햇빛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의 수령전설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이 부각된다. 북한의 수령 전설 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자연을 통제하는 수령님이 등장한다.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자.

〈풍운 조화를 일으키시다〉



1. 주체 85년 1996년 3월 18일 김정일장군님이 대덕산 일대에 현지조사
2. 대덕산은 남한과 닿아있는 곳으로, 헌병초소에서 내려다보이는 위험 지역임
3. 새가 등장하며 세찬 바람, 검은 구름, 진눈깨비로 헌병 초소에서 자신이 안보이게 조화 부림
4. 기념촬영 시에는 밝아야 함으로 하늘에 구멍을 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게 함
5. 장군님은 하늘과 소통하시는 위인이심

▲〈풍운조화를 일으키시다〉 전설집 표지 삽화

“장군님께서서는 바람, 안개, 구름을 주관하시고, 진눈깨비를 함박눈으로 바꾸시며, 가는 해를 멈추어 세워 밝게 비추시었습니다.”

“화가 난 지도자선생님께서 일본 지도를 먹으로 까맣게 칠하시자, 일본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느닷없는 소낙비가 한동안 내렸습니다.”

〈지동이 일다〉



1. 일본이 점점 궁지에 몰림, 불행의 화근이 조선에 있다고 생각한 천황은 조선 가려고 함
2. 지금 조선에는 매일 오후 4시마다 지동이 이는데 심상치 않다며 천황 말리는 신하들
3. 겁 난 천황은 백두산에서 가장 먼 제주도까지 갔지만 지동이 너무 강해 일본 돌아감
4. 결국 일본은 패망, 태어날 때부터 천지조화 부리신 김정일 장군님 찬양
5. 일본 지도를 먹으로 칠하자 일본에 구름이 덮이며 소낙비 내림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한 몸에 지님)

(4) 사물의 창조 수령님이 만지시면 방탄 이불이 똑딱

〈방한, 방탄 이불〉

1. 김일성장군님이 집집을 돌러보며 살림 살핌, 화재로 이불이 탄 집이 많았음
2. 솜이불을 만들어 나누어 주라는 지시를 내리고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함
3. 일본의 습격이 있었지만 장군님이 주신 이불 두고 못 도망친다며 이불 뒤집어 쓰고 버팀
4. 이불이 총알을 막아줌, 이불이 두툼해서가 아니라, 장군님의 은덕이 두터워 방탄한 것이라 믿음

“인민들에게 들썹워비는 모든 재난과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방한방탄이불을 만들어 나누어주신 것이었습니다.”



▲ 문과 벽 모든 것이 일본군의 총알에 부셔졌지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수령님의 방한방탄이불

〈눈물 흘린 표충비〉



▲〈눈물 흘린 표충비〉 전설집 표지

1. 경남 밀양 무안리 홍제사의 표충비는 김일성 장군님이 방문해 친히 만진 후부터 신묘한 힘 생김
2. 위기에는 땀 흘리고 경사 나면 눈물 흘림
3. 표충비에서 갑자기 푸른 빛 나오며 눈물 흘림(염분+단백질+리소찌무)
4. 그 날은 바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날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표충비를 만지신 뒤부터,
나라에 경사가 생기면 루출 현상이 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이든 수령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한 순간에 이불이 방탄 소재로 변하거나, 비석이 땀과 눈물을 흘리는 등의 비범한 물건으로 변한다. 이렇게 비범한 성질을 갖게 된 물건들은, 주로 ‘국가의 안녕’ 혹은 ‘인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그 표충비나 이불 등의 사물이 수령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방한방탄이불의 주인공은, 일본군의 총알이 퍼붓고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불을 집에 두고 자신만 탈출할 수 없다며 끝까지 이불을 지킨다. 마치 이불이 수령님인 것 같이 애지중지하는 것이다. 수령님이 만진 이불은, 곧 수령님이 되고, 이는 인민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이 물건들은 실생활에서 인민들이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인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불의 경우, 없으면 안되는 생필품이며, 표충비 역시 각 고장마다 하나씩은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다. 이를 통해 인민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가, 인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자애롭고 잘 생기신 수령님! _인간적 면모

흔히 수령 전설의 중심 인물인 수령, 즉 김정일 혹은 김일성은 초인적 인물로 다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분류의 결과를 미리 언급하자면, 40여편의 수령 전설을 직접 읽고 강조되는 수령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역시 수령님의 초월적 면모를 강조하는 전설이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이 장에서 다룰 전설들은, 초월적 면모(가령 초능력이나 예언 등)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전설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월적 면모 없이, 어떻게 수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을까? 다양한 수령 전설집을 읽어본 결과, 초월적 면모를 강조한 전설의 수가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인간적 면모를 강조한 후자의 전설들 내에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어 이를 다시 나눠서 분석해볼 수 있었다. 초월적 능력 없이 수령님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그 자애로운 인성을 칭송하거나, 얼굴과 몸매 등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

(1) 자애로운 인품 _수령님의 인품은 온 세상이 찬양한다.

〈양덕땅에 깃든 전설〉

1. 온 사방에 김일성 령수 칭송이 가득한 양덕 땅
2. 산에 약초 캐러 간 농민 황근복은 우연히 군인을 만나 비밀 유지 위해 동행해 달라는 요구 받음
3. 사령관이 들어오고 살림 형편을 물어 걱정을 해주고, 귀한 손님처럼 잘 대접 하며 돈과 약초를 줌
4. 만백성의 태양인 김일성 장군이라고 짐작, 며칠 뒤 사실임을 알게 됨
5. 자애롭고 따뜻한 인품에 모든 양덕 인민이 칭송함

“이 사람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민을 믿어야 한다.”

본 전설에서 강조되는 수령의 특성은 한없이 자애롭고 인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같은 모습이다. 황근복을 의심하며 비밀이 유출될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군인을 꾸짖으며, “이 사람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민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일성은 그 어떤 초능력 없이도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호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양덕땅에 깃든 전설〉의 황근복은 자신이 비밀을 누설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곤란하게 되고, 여기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김일성인 것이다. 이는 ‘가족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흔히 우리는 ‘가족’을, 세상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수령님은 어느새 인민들의 가족, 즉 ‘아버지 수령’이 되어있는 것이다.

〈위인칭송무지경〉

1. 1940년 황해북도 평산소학교에서 일본인 역사교원 구미무라 히데오는 체포됨
2. 젊은 시절 토벌대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움 직접 본 후, 교원이 되어 장군님의 위대함 가르침
3. 이 이야기를 들은 훈육 주임은 히데오를 불온사상 선전죄로 신고
4. 하지만 당당한 히데오: 자애로운 인품의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5. 재판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히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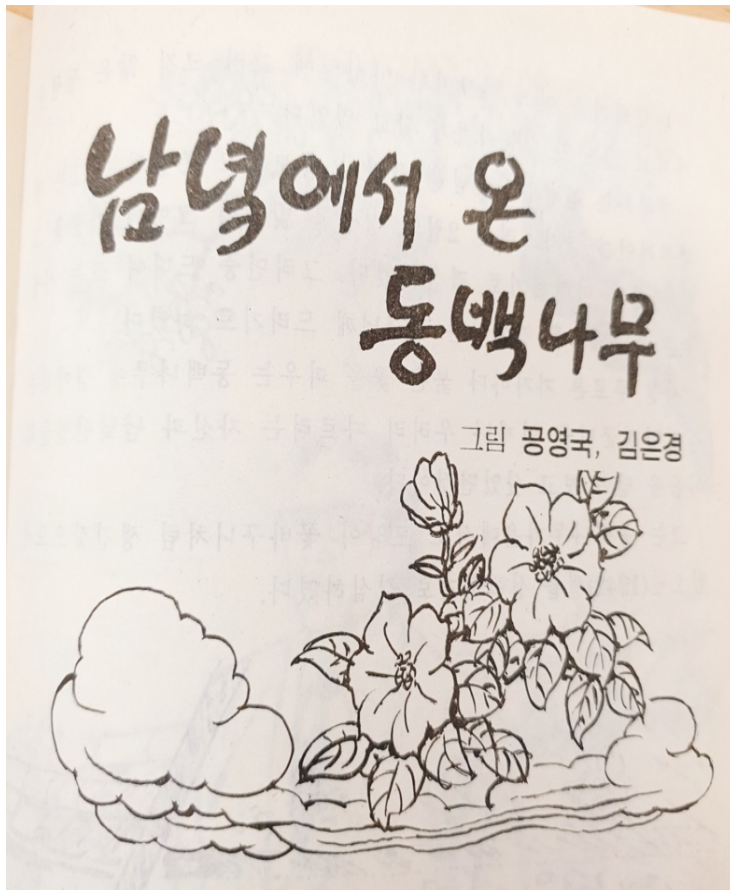
“김일성 장군의 자애로운 인품은 한 나라, 대륙의 범위를 벗어나
온 세상에 있고 전 인류적입니다. 이것은 선동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품은 조선땅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까지 칭송 받는다는 내용의 전설도 존재한다. 심지어 국가의 숙적인 일본 출신의 교원이 김일성을 칭송하는 것은 그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설 〈위인칭송무지경〉은 일본 토벌대 출신 히데오가 김일성의 뛰어난 인품에 반해 교원이 된 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본 전설에서는 수령님의 초월적 능력이 아닌, 그저 훌륭한 인품만이 중요한 주제로 작용한다. 수령님의 인품에 대한 외국인, 혹은 외부인의 인정은 전망을 더욱 강화하며, 동시에 국가나 당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남녘에서 온 동백나무〉 전설집에서는, 수령님을 칭송하는 국가를 남한으로까지 확장한다. “남조선 인민들이 장군님의 인품에 반하여 언제나 우리러 따르려는 것이다”라며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수령의 인품을 칭송하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북한 인민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수령님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전설에는, 수령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듯 하다. 즉, 아무것도 안한 채로 가만히 있어도 온 세상이 앞다투어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재판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히데오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뼈라,
당황한 일본 경찰들



▲ 〈남녘에서 온 동백나무〉 전설집 표지 삽화

(2) 수려한 외모의 수령님

초인적 능력보다 오히려 수령님의 단정하고 수려한 외모를 칭송하는 전설 또한 있었다. 대체로 얼굴과 몸매, 그리고 향기와 눈빛까지 수령님의 모든 외모가 아주 뛰어나 모든 인민들이 가슴 속에 그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옥좌에 비끼는 밝은 빛〉

- 1.남한의 이발소에 이발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왕에게 바치려 한 곁상이 있었음
- 2.아들에게 유언으로 그 곁상에는 아무나 앉히지 말고 절세 위인만 앉히라고 당부
- 3.수려한 외모의, 한 눈에 봐도 비범해보이는 젊은이의 등장
- 4.비범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곁상에 앉히니, 그 곁상이 옥좌처럼 빛남

“존안은 태양이요 몸매는 산악인듯 근엄한데
안광에는 천리도 순간에 뚫을 듯 한 영채가 뿜어 나왔다.”

이렇게 누가 봐도 빼어난 외모를 지니신 수령님은, 단번에 존경의 대상이 된다.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실 분은 오로지 김일성 장군님밖에 없다는 신념이 인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고 밝힌다. 이는, 김일성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외모를 이용해 강조한 것이다. 외모는, 사람을 볼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다. ‘딱 봐도’, 그리고 ‘누가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닌 수령님을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수령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내용 없이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보편 영웅설화의 일대기와 비교한 수령 특성

1) 유사성 측면

(1) 고귀한 혈통

혈통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것은 수령 등장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핏줄’, 즉 피로 이어진 관계는 권력의 세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다. 이는, 김일성의 비범한 능력을 실컷 강조해왔다면, 그 능력이 아들인 김정일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어린 지도자 선생님은 김일성장군의 슬기를 그대로 지니신 분이로서,
축지법과 천지조화술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혈통의 고귀함을 내세워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한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에 열을 올렸지만 초반의 전설에서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변화무쌍한 신화적 인물로 기술하지 않았고, 다만 매우 비범한 영웅적 인물로만 기술하고 있다(정교진, 2016: 320). 김일성을 신화적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87년에 김일성 전설집 이 출간되면서 부터이다. 왜, 유독 이시기에 김일성 전설집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시기에 수령 전설은 김일성의 존재를 신적 존재로, 절대 지존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사상적 측면에서 김정일이 1986년에 ‘사회정치생명체론’을 내세우면서 수령인 김일성을 완전한 의미에서 신적 존재로 만들었으며 자신은 ‘신의 아들’로 그 지위를 격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 수령의 지위를 격상시켜 혈연 관계인 자신의 지위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1-(2) 비범한 출생

백두광명성 전설은 김정일의 탄생을 북한 인민 최대의 대통운으로 축복하면서 전설화한 혁명적 장수설화이다. 일반적으로, 김정일의 탄생 관련 전설은 양적으로 매우 풍부한 반면, 김일성의 탄생 전설은 전무하다. 그렇기에, 본 장에서는 백두광명성 전설에 나타난 김정일의 비범한 출생을 주로 다룬다.

백두광명성 전설을 5권까지 읽어본 결과, 이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주로 김정일의 탄생 자체와 관련된 전설들로, 위인의 탄생을 신묘한 자연현상들과 결부해 탄생을 신성화하는 전설이고, 둘째는 각종 초인적 술법과 전술로 활약하는 청년 김정일의 전설이다. 이 중 본 장에서는, 탄생 설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지명전설들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을 기이하고 신비로운 지물과 결부하여 전설화하고있다.”

△별

김정일의 출생은 역시 예사롭지 않다. 특히, 자연물과 관련된 출생 전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별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다. 별을 소재로 이용하는 방식 역시 일관적이었는데, 〈백두산 장수봉에 광명성 손았다〉, 〈백두산 애기 장수별〉 등 백두산 하늘에 새로운 별이 뜬 것으로 김정일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었다. 백두산 장수봉에 광명성이 솟아오른 기이한 현상을 하늘의 계시와 결부시켜 비범화하면서, 김정일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이다. 백두산마루에 유난히 반짝이는 새별이 기존에 존재하던 장군별(김일성 별) 옆에 떠올라 더욱 밝은 빛을 뿌리는 것은 곧 김정일이 김일성의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의 필연성

수령님은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탄생하시지 않는다. 전설 속에서 김정일은 백두산 소백수굴의 높은 봉우리인 장수봉에서 2월 16일에 태어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전설은 다소 황당하지만 그럴듯 한 설명을 제시하고있다. 이를 다루는 수령 전설 〈2월16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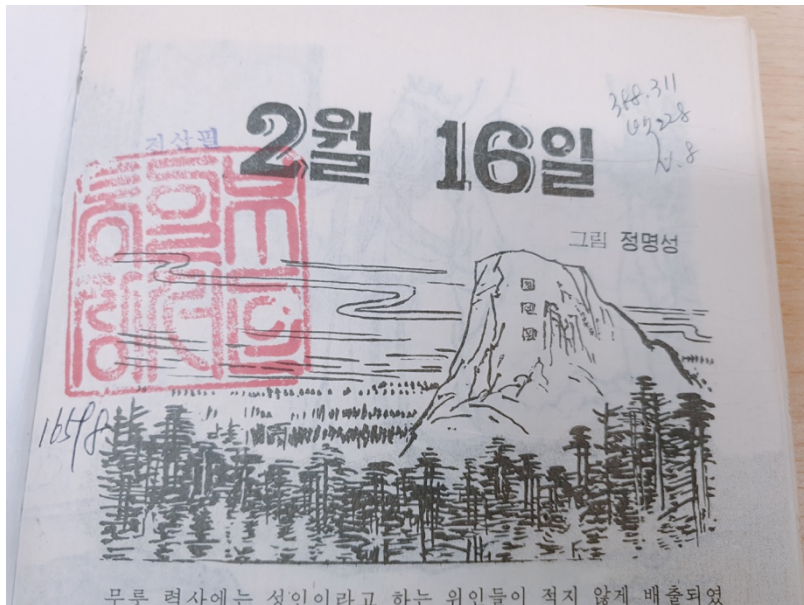


1. 김정일이 탄생한 2월 16일은 하늘이 정해진 날 짜임을 밝힘
2. 계절은겨울과 봄의 중간으로, 흰 눈의 승엄함과 만물 소생이 공존하는 희망의 계절을 고른 것
3. 2월=입춘의 첫머리로, 겨울이 완전하나 봄이 태동하는 때임
4. 16일=백두산 대장수님(김일성), 백두산 여장수님(김정숙)의 탄생일처럼 월요일에 맞추기 위함
5. 2/16의 앞 두 숫자 21은 '21세기의 희망' 뜻함

“성지로 정한 백두산 장수봉의 높이는 216.42m로 2월 16일을 의미한다.

성인이 태어날 날을 미리 알고 그렇게 산을 세워둔 것이니라.”

겨울과 봄의 중간 계절을 고른 것도, 입춘의 첫머리인 2월을 고른 것도, 김일성과 김정숙처럼 월요일을 탄생일로 정한 것도, 장수봉의 높이인 216m와 연결된 날짜를 고른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두산 장수봉의 높이와의 연관성이다. 전설에서는 ‘산의 높이에 맞춰 김정일의 탄생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에 태어날 것을 알고 ‘산을 그 높이에 맞춰 미리 지어둔 것’이라고 묘사한다. 즉, 김정일의 탄생이 필연적이며 이미 백두산이 형성된 때부터 예견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2월 16일〉 전설집 표지 삽화

△시대적 배경과의 연결

동시에, 김정일의 비범한 출생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새 장수의 출현과 일제 패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탄생 전부터 보인 각종 조짐들(별이 솟는 등)을 보고, 조국 광복을 학수고대하던 인민들은 백두산에 광복을 이루어줄 새 장수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당시의 항일 투쟁과 광복 지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영웅 설화 보편에서 나타나는 ‘진인 출현’의 양상과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진인은 항상 국가적 위기에 태어나 활약한다. 이러한 전개는 곧,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비범한 인물임을 강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2) 독자성

(1) 위기 상황의 부재 수령님께 위기는 없다

보통 영웅 설화의 구조상, 유년기에서 성년기로의 과도기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혹은 위기에 빠지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강재철, 2009: 20).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며 진정한 성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몽 전설에서는 배다른 형들의 계략에 빠져 목숨을 위협받지만, 스스로 도망쳐 결국 고구려를 세우는 모습이, 홍길동 전설의 경우 계모가 보낸 자객에 목숨을 위협받지만, 스스로의 도술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 수령 전설에 위기는 ‘없다’. 심지어 시대적 배경이 일본군과의 전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령님은 단 한번도 위협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수령님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룬 수령님의 초월적 능력 중 선견지명의 능력으로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보고 인민들을 지키거나, 혹은 <천출위인접견기>에서처럼 일본 정무총감이 인민군으로 위장해 접촉했을 때 알면서도 모른척 조금은 속아주는 등 역으로 그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일제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도 절대 ‘위기 상황’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령은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조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될 것임을 알고 이를 예언하는 것이다. 다소 뻔한 전개지만, 수령님에게 위기 상황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모두가 위기로 보는 국가 상황도 수령님에게는 곧 지나갈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위기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령을 도와주는, 수령과 비슷한 위치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웅서사에서 위기를 극복해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수령 전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는 수령님이 이미 완전한 영웅, 비범한 존재로 이런 과도기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수령 전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_창작시 강조되는 세 가지 전략

1) 진실성의 강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초능력이 난무하는 수령전설은 어떻게 인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화’임을 호소할 수 있을까? 북한의 수령 전설이 진실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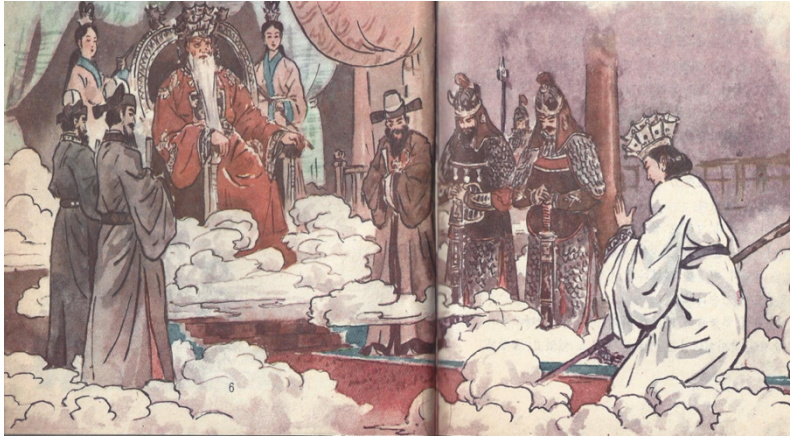
① 신은 신이고 수령님은 인간인걸?

수령 전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취하는 첫 번째 전략은, 수령님을 신의 존재와는 명백하게 구분하고, 인민들과 같은 인간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령 ‘전설’이 ‘신화’와는 명백히 다른 갈래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정미(2004)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화의 범주로 설정한 이야기는 <단군신화>와 <해모수 신화> 두 편 뿐이다. 또한, 신화는 계급사회 이전의 환상적 장르로, 그에 반해 전설은 환상은 약화시키고, 진실성을 부각하는 역사적 장르로 강조하고 있다(한정미, 2004: 203). 이는 곧,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은 신의 범주가 아닌 인간의 범주에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이라는 존재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수령 전설에서는 수령들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듯 하다.

“(**옥황상제**)가 성지를 정할 때, 성인이 태어날 날을 미리 알고

그렇게 백두산 장수봉의 높이를 216.42m로 산을 세워둔 것이니라”

“저 분은 **신선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기를 그대로 지니신 분이다.”



▲수령이 마냥 초월적인 신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아예 하늘 세계와 인간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늘 세계는 옥황상제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묘사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신’을 전설에 등장시켜 수령과 명백히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탄생 날짜가 승엄한 날임을 강조하는 전설 〈2월 16일〉에서는 김정일을 언제 태어나게 하면 좋을지 회의하는 옥황상제와 선녀들이 등장한다. 또한, 〈백두산 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전설에서는 백발노인이 등장하는데, 흰 제비와 함께 등장해 김정일 탄생의 경사를 알리고는 홀연히 사라진다. 또한, 〈안개진 국사봉〉에서는 직접 “저 분은 신선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기를 그대로 지니신 분이다.”라며 명시적으로 수령의 정체성을 인간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령의 정체성을 인간으로 확정하는 것은, 인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한다. 흔히 신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 혹은 환상의 세계로 인식되지만 인간세계의 일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보다 현실성이 높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더욱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제시해 상대적으로 수령 전설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령이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백발에 흰 한복을 입은 전형적인 신선이 등장한다.

② 가짜같지? 그런데 진짜야!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지동이 일다 중)
“최근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 구호문헌들이 많이 발굴되자
이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해졌고, **구호 문헌에 따르면**
이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만병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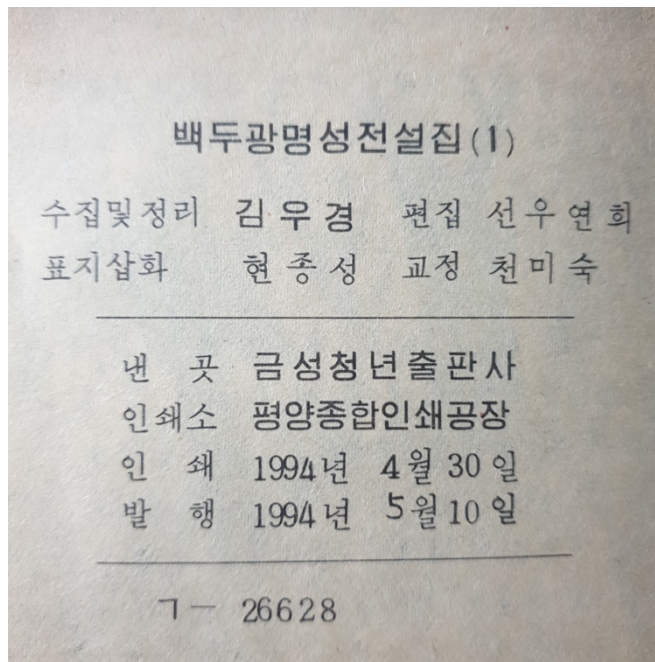
전설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직설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지금 전하고 있는 전설이 허구가 아님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로, 주로 수령님이 행하신 초월적 능력을 한참 소개한 후, 그 소개의 말미에 그 설명들이 진실임을 강조한다. <지동이 일다>에서는 간단히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초를 수령님이 보내신 새별이 가르쳐준 곳에서 찾은 소년의 이야기인 <만병초>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헌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③ 지은이(x), 발굴자(o)!

북한에서는 수령 전설집을 ‘짓는다’, 혹은 ‘창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발굴 정리한다’는 다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전설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백두산 전설집>, 혹은 <백두광명성 전설집>의 ‘발굴자’ 명단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우경”이라는 이름이 있다. 거의 모든 전설집의 ‘수집 및 정리’ 칸에는 김우경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데, 이로 볼 때, 북한 수령 전설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발굴, 정리한 핵심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종군(2016)에 따르면, 이는 ‘발굴 정리자’라고는 하지만 결국 김우경에 의한 전설 대부분의 창작 가능성이 짙다(김종군, 2016: 10). 그럼에도 수령 전설에서 저자나 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발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수령 전설이 특정 주체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로부터 인민들 사이에 떠돌아 구전되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발굴, 정리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모든 수령 전설은 창작의 산물이 아닌, 수집, 정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누가 의식적으로 조직화함이 없이 자연군중들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들이 수없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20 세기가 낳은 전설적 영웅이시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김동규, 김일성전설집 :27).”



▲수령 전설에서는저자, 필자가 아닌 ‘수집 및 정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특히, 여러 전설집에 반복적으로 ‘김우경’의 이름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2) 인민성 수령 전설은 인민에 복무해야 한다!

“예술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투쟁을 옹계 반영해야 하며
인민대중에 복무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보아야 합니다.

인민성 역시 북한의 수령 전설에서 다소 독자적인 부분이다. 인민성이란 문학예술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철두철미하게 인민대중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민성을 문학작품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작가들은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준수 사항은 아래와 같다(김화경, 1998: 25).

첫째, 인민적인 입장에서 창작해야 한다.

둘째, 인민이 알 수 있는 쉬운 작품을 창작한다.

셋째, 인민의 감정에 맞고 인민이 좋아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해야만 한다.

북한의 문예이론집을 보니, 전통적인 것이라도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은 현재 미감에 맞춰 고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북한의 예술에서 강조되는 ‘인민성’은 수령 전설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을까?

문학예술 작품 속에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문학예술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① 작가, 예술인들이 해당 시기의 인민생활에서 의의 있고 인민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작품에 반영하며 이를 인민의 이익의 견지에 서서 그 시대 인민의 선진적 이상에 비추어 진실하게 묘사하는 데서 표현될 것이다.
- ② 작가, 예술가들이 인민대중의 사상 감정과 미학적 요구에 맞는 예술적 형식들과 표현수단들을 옹계 이용하는 데서 표현될 것이다.
- ③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얼마나 심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복무하였는가에 의해 인민성의 높이가 규정될 것이다.
- ④ 인민성의 철저한 구현을 위해 작가, 예술가들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요약하자면, 인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인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와 내용을 표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 전설은 인민의 염원을 반영한 주제들을 선택하고 있었다. 분류를 통해 보자면, 인민의 염원을 반영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 차원: 항일투쟁기에 광복의 염원

- 1) 포악한 경찰과 일본군의 척결을 염원
- 2) 국제적으로 조선이 인정받기를 염원
- 3)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염원

-개인 차원:

- 1) 부모님의 병이 낫기를 염원
- 2)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기를 염원

-국가 차원

△포악한 경찰과 일본군의 척결을 염원함

먼저, 국가 차원의 주제의식 중에는, 역시 항일투쟁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들이 다수였다. 당시 인민들을 괴롭히고 식량과 쇠붙이를 가져가고 심지어 청년들까지 마음대로 동원하는 일본군의 만행에 화가 난 인민들의 모습이 종종 그려진다.

특징적인 점은, 잔인한 일본군/일본 경찰을 묘사하며,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설 〈백두산의 징벌〉에서는, 조선인 청년 ‘리형’을 죽인 일본 군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리형을 그 악귀같은 구마무라놈이 죽였지요?”

“나가시마 장군과 졸병들은 유격대를 쫓아 다니며 죽이길 좋아했다.”

또한, 〈신기한 발자국〉에서 북한 유격대를 쫓아다니며 죽이는 일본군의 수장은 위와 같이 언급된다. 이 밖에, 〈천출위인 접견기〉에서 조선 반일학생조직의 활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펄쩍펄쩍 뛰는 정무총감의 이름은 후루가와, 〈위인칭송무지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악독한 일본 장군의 이름은 호리모도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등장 인물에 구체적 특성을 더하거나, 이야기의 사실성을 얻기 위한 전략인 듯하다. 인민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항일 투쟁 당시, 위와 같은 일제의 폭주와 괴롭힘은 인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진심으로 척결되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전설의 결말이 모두 수령님의 지략에 말살되거나 시체로 발견되는 등, 인민들의 염원을 결말로 투영하고 있었다. 즉, 인민들이 진심으로 염원하는 사항들과 낙관적인 결말을 선택함으로써, 인민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인민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조선이 인정받기를 염원함

인민들은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특히 조국을 공격하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자신들이 더 잘 살고 있으며,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했다. 이와 같은 염원을 담은 수령 설화는 주로, 수령님이 가꾸신 엄청난 자연물을 주요 소재로 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금강산과 수령님>에서는

“하늘보다 지상이 이렇듯 좋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산천에서
제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고 하면서 수령님이 가꾸신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염원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한, <하늘나라 꽃> 전설은, 구체적인 국가명 스웨리예(스웨덴)을 언급하는
전설로, 그곳에서 열린 북유럽 화초 전시회에서 수령님이 가꾸신 김정일화가
일본과 미국의 다른 화초들을 재치고 1 위를 차지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북한에서 난 화초가 스웨덴의 날씨가까지 조절하는 장면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김정일화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입니다. 천상의 꽃이 이땅에 래도한
하늘나라의 꽃입니다.”

“세계 5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희망, 투쟁의 상징으로
인정한 것이다.”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염원

예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진인 출현설이 성행하였다 진인은 민중이 희
구하는 새로운 치자의 상징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의 김일성 부자의 출현과 그들
이 보여준 비범한 능력은 바로 진인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부자 관련 전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온 민족이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때에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대한 영결이 출현하시고 그이께서 정규군과 국가적 후방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일제의 반만대 군을 락엽처럼 휩쓸어 버리시는 그 전대미문의 비상한 역사적 사실자체가 벌써 전설적 형상을 낳을 수밖에 없게 하는 생활적 바탕으로 된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갈망하던 인민의 기대에 의해서 김정일 부자는 형상화되었다. 주로 항일투쟁시기인 20 세기에 창조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전설 중에는 그들의등장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정교진,2016: 324). 예를 들어, ‘진인 출현설’과 같이 국가적 혼란기에 민중의 요구하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수령 전설 〈백두산 기인설〉에서 어린 소년인 김정일이 ‘3 년 뒤 조국이 해방되니 조금만 참고 버티자’는 예언과 함께 등장한 것이나, 전쟁과 더불어, 마땅한 지도자의 부재로 더욱 가중된 혼란 속에서 수령의 등장 역시 인민의 강한 염원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염원은 생각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과 닮아 있었다.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혹은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병에 걸려 돌아온 부모님을 낫게 하고싶은 자식의 효심 등을 이용한 것 등이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부모님의 병,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것을 주제로 한 수령 전설의 전형은, 일본이나 미군의 만행으로 병을 얻은 부모와, 효심 자극한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들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식물(만병초, 황생초 등)을 찾아 위험한 산으로 떠난다. 온갖 일들을 겪으며 고통받는 주인공에게 수령님은 무지개, 별빛 등의 자연현상이나, 흰 제비, 사슴 등의 동물을 보내 영험한 식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부모님의 병을 치료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능력을 반추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가족이 아픈 상황은, 모든 인민이 감정 이입하기에 매우 유용한 소재이며, 동시에 매우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공감 능력을 쉽게 자극한다. 또한 ‘누군가가 다친’ 상황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뉘 바라볼 수 있다.

1)다치게 한 자 2)다친 자 3)치료하는 자가 그 세 가지인데, 수령전설에서는 특히 1)다치게 한 자에 국가적 숙적인 미국과 일본의 이미지를 주로 이용한다. 병/부상이 왜놈들이나 미국군들에 의한 것이라면 인민의 분노와 슬픔은 배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의 등장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두산 창공에 장수별이 빛나더니, 신비로운 새별이 솟아 빛을 뿌리고,
사슴이 기슭에서 내려와 만병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대부분의 수령 전설이 ‘항일 투쟁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어 전시 상황에서 인민의 모습을 다루는 것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민들은 집이 부서지거나, 밭이 황폐화되고, 이불이 모두 타버려 추운 겨울에

고통받는다. 당장 생계에 필요한 의, 식, 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현실의 심각한 문제가 전설 속에서는 수령님의 능력으로 한 순간에 해결된다. 이 역시 위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민 창작성

앞서 말했지만 북한의 수령 전설에는 지은이/창작자가 없다. 다만 수집자/발굴자가 있을 뿐이다. 이 전설들이 모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선가 찾아 온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들의 진짜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 북한에서는 전설들의 출처는 바로 ‘인민들’이라고 강조한다. 즉, 전설집이 창작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저 책으로 묶어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령 전설의 인민 창작성을 강조하는 주된 방식은, ‘무지한 인민의 입을 빌리’는 방식이다. 수령을 우연히 마주친 정말 평범한 인민들의 경험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성산에 보통별이 아니라 장군별이 떴은즉 그것은 장차 조선을 구원할 성인이 내렸다는 뜻인데...” 남쪽 지리산 지역에 사는 **한 노인네**가 말했다. 또한, **까까머리 남한 아이**의 입을 빌어,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나시고 하늘의 별을 부리시는 분이시기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신대. 장군님께서서는 왜놈들을 치실 때는 장군별을 하늘에 띄워놓으시고 적들을 몽땅 골짜기에 몰아 넣고 잡으시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놈들과 싸워서 죽게도 하신다구 그러더라.”

학자의 입에서가 아니라 무지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소문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령 전설이 북한 사회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나 지식인이 고도의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수령 전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5. 나가는 글

앞에서 다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먼저는, 수령 전설에서 수령에 강조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나름의 분류를 진행했다. 크게는 초월적 능력이 강조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만을 강조하는 전설들로 나누고, 그 속에서도 초월적 능력은 선견지명, 축지법, 자연물과의 합응, 사물의 창조로 각각 나눌 수 있었다. 초월적 면모의 강조 없이도 인간적 면모만을 강조해 수령을 높이는 전설들도 의외로 존재했는데, 이는 주로 훌륭한 인품을 강조하거나, 수려한 외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수령의 모든 능력을 북한이 아닌 전 세계 (남한, 미국, 스웨덴 등)가 찬미하는 형식을 차용해 수령의 위상을 더 높이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그저 초인적 능력만을 강조한 ‘막 만든 이야기’로 치부되던 수령 전설이, 사실은 주제 면에서도, 그리고 주인공인 수령에 강조하는 특성에 있어서도 나름의 체계가 있어 분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수령 전설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영웅 설화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다뤘다. 나름의 분석 결과, 유사한 점으로는, 신성한 혈통, 비범한 출생 등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모든 영웅들이 한번쯤은 겪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위기’의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설의 시대적 배경이 ‘항일 투쟁 시기’로 명백한 국가적 위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위기에 몰린 상황을 아예 다루지 않는 방법도 취하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명백히 위기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히려 낙관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수령의 모습을 통해 수령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다양한 수령 전설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추측해본 ‘수령 전설의 창작 전략’을 다뤘다. 창작 과정에서 강조되는 전략은 총 세가지, 1)진실성의 강조 2)인민성 3)인민 창작성으로, 인민들이 다소 허구적인 수령 전설을 믿게 하거나, 쉽게 공감/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허구의 이야기, 체계도 없고 주제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상상의 산물로 홀대 받던 수령 전설에도 주제, 창작 과정에서

나름의 체계와 독자성이 존재하며, 기존에 익숙하게 다뤄지던 영웅 설화와 유사하면서도 나름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신 혁명설화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대와 인민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구전문학연구, 리동원, 2005, 237 쪽)

끝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적, 독자적으로 구성된 수령 전설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전설들을 통해, 수령의 우상화는 물론이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거나, 국가 권력의 정통성과 권력 세습의 정당화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김씨 일가의 초월적 면모와 혈통의 고귀함을 강조함으로써 세습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된다. 위에서 주로 다룬 김정일 전설집인 <백두 광명성 전설집>은 1991년부터 출판된 것으로, 이 시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거의 전환된 시기였다(김종균, 2016: 252). 또한, 김일성 전설집보다 초월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김일성, 김정일을 지나 김정은의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은 2012년부터 김정은의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특출한 위인성을 선전하는 첫 회상 실기도서인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를 조선로동당에서 출판하면서 <김정은 혁명력사>를 학교 의무 교재로 넣었다. 본 교재는 김정은이 3 세때부터 사격을 명중하고 자동차를 들었다는 등의 초월적 면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수령 전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설적인 요소가 김정일의 수령전설보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으로 보아(김종균, 2016: 260), 수령 전설을 이용한 권력 세습의 정당화가 분명히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구술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는 세계다. 전설을 이용해 인민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도가 인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문학을 도구화하는 맥락에서 수령 전설의 장르적, 주제적 특성이 허무맹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수령 전설은 그 주제, 장르, 창작 전략면에서도 그저 ‘허구적’이라고 비웃고 넘어가기엔 나름의 체계성과 독자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령전설은 수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인민성의 선택으로 인민들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전설 속에서나마 충족시켜주는 등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더불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심화하며 동시에 인민들 개개인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이기도 한다. 그저 ‘어이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체계적이고 나름 현실적이며, 독자적이지 않은가?

〈참고 문헌〉

강재철, 2009, 『한국 설화문학의 탐구: 한국 설화의 전통적 접근』, 단국대학교 출판부.

김종군, 2016, 『북한의 현대 이야기 문학 창작 원리 연구-금수산기념궁전 전설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5, 239-271.

김화경, 1998, 『북한 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임재천, 2013, 『북한 초등학교에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 한국학연구-지도자 신화 배우기와 의식 참여를 중심으로』, 47, 241-269.

임창호, 2012,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개념과 서술에 대한 연구』, 기독교 교육논총, vol.30, p287-316.

전영선, 2014, 『북한 문화예술에서 리얼리즘과 환상의 접점』, 통일 인문학, 59, 287-311.

정교진, 2016,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전략 및 특성 비교 연구-지도자 우상화의 ‘신화적 사고’ 접근 유,무 분석을 중점으로』, 통일인문학, 68, 297-335.

한정미, 2004, 『북한의 설화 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 191-216.

황윤정, 2017, 『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김우경, 1997, 『백두 광명성 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vol.1~5

북한 전설집

〈신기한 발자국〉

〈백두산의 쌀나무〉

〈하늘이 낸 날〉

〈하늘나라 꽃〉
〈강산이 운다〉
〈2월 16일〉
〈풍운조화를 일으키시다〉
〈하늘나라 꽃〉
〈눈물흘린 표충비〉
〈남녘에서 온 동백나무〉
〈신기한 발자국〉
〈룽바위골 바위대문〉
〈전출위인 접견기〉
〈옥좌에 비낀 밝은 빛〉
〈양덕장에 깃든 전설〉
〈위인칭송무지경〉
〈하늘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백두산의 징벌〉
〈방한방탄이불〉
〈조선의 하늘님〉

.
. .
. .
. .
. .
. .
. .

제목

부제목

제 1 판 1쇄 펴낸 날 2018 년 12 월 6 일

제 1 판 2쇄 펴낸 날 2018 년 12 월 7 일

지은이_ 석재현

펴낸이_ 석재현

펴낸곳_ (주)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북한의 인류학>출판사

주소_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6 동-448-2 호

전화_ 448-4448

팩스_ 884-8884

이메일_ cs10047@naver.com

홈페이지_ www.북한의수령전설.co.kr

ISBN_ 000-00-000-0000-0 00000

값 15,000 원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